**수 신: 자동차 담당 기자님**

**배포일자: 2022년 1월 3일(월)**

**관련자료: 표**

**현대차, 2021년 389만 981대 판매**

- ’21년 전 세계 시장서 총 389만 981대 판매, 전년 대비 3.9% 증가

- 국내 시장서 총 72만 6,838대 판매, ‘20년 대비 7.7% 감소

- 해외 시장서 총 316만 4,143대 판매, ‘20년 대비 7.0% 증가

- ‘22년은 반도체 수급 안정화 노력, 차량 생산일정 조정, 전동화 라인업 강화, 권역별 판매 손익 최적화 등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강화 추진

… 국내 73만 2천대, 해외 359만 1천대 등 432만 3천대 판매 목표

- ‘21년 12월은 국내 6만 6,112대, 해외 26만 8,130대 등 33만 4,242대 판매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 분 | **2021년** | 2020년 | 전년동월 대비 | 2021년 | 전월 대비 | **2021년** | 2020년 | 전년누계 대비 |
| **12월** | 12월 | 11월 | **1-12월** | 1-12월 |
| 국내 | **66,112** | 68,486 | -3.5% | 62,071 | 6.5% | **726,838** | 787,854 | -7.7% |
| 해외 | **268,130** | 306,707 | -12.6% | 255,100 | 5.1% | **3,164,143** | 2,956,883 | 7.0% |
| 계 | **334,242** | 375,193 | -10.9% | 317,171 | 5.4% | **3,890,981** | 3,744,737 | 3.9% |

현대자동차는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72만 6,838대, 해외 316만 4,143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89만 981대를 판매했다.

이는 지난 2020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7.7% 감소, 해외 판매는 7.0% 증가한 수치다.

2021년은 반도체 부품 이슈 등의 영향으로 국내 판매가 다소 감소했지만,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기저효과와 미국, 유럽 및 신흥시장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해외 판매는 늘었다,

현대차는 2022년 ▲반도체 수급 안정화 노력 ▲차량 생산일정 조정 ▲전동화 라인업 강화 ▲권역별 판매 손익 최적화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이를 바탕으로 현대차는 올해 국내 73만 2천대, 해외 359만 1천대 등 총 432만 3천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.

**■** 국내판매

현대차는 2021년 국내 시장에서 2020년 대비 7.7% 감소한 72만 6,838대를 판매했다.

세단은 그랜저가 8만 9,084대, 쏘나타 6만 3,109대, 아반떼 7만 1,036대 등 총 22만 3,741대가 팔렸다.

RV는 팰리세이드 5만 2,338대, 싼타페 4만 1,600대, 투싼 4만 8,376대, 아이오닉5 2만 2,671대, 캐스퍼 1만 806대 등 총 21만 33대가 팔렸다.

한편, 2021년 현대차의 국내 시장 판매는 친환경차 모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.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는 2020년과 비교해 3.4% 성장한 6만 8,416대, 전기차는 128.1% 성장한 4만 2,448대, 수소전기차(넥쏘)는 46.9% 성장한 8,502대가 팔렸다.

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-GMP 기반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인기를 발판삼아 후속 전기차 모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.

상용차는 9만 2,218대의 판매고를 올린 포터와 2만 6,240대가 팔린 스타리아 등을 합한 소형 상용차가 12만 5,650대 판매됐고, 중대형 버스와 트럭을 합한 대형 상용차는 2 만 8,658대가 판매됐다.

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5만 9,463대, GV60 1,190대, GV70 4만 994대, GV80 2만 4,591대 등 총 13만 8,756대가 팔렸다.

**■** 해외판매

현대차는 2021년 해외 시장에서 지난 2020년 대비 7.0% 증가한 316만 4,143대를 판매했다.

현대차 관계자는 “지난해 반도체 부품 이슈 등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차량 생산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급 지연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 받아 글로벌 판매가 성장세를 기록했다”며 “올해는 아이오닉6, GV70 전동화모델 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함께 내실 있는 판매 전략을 펼쳐 고객이 신뢰하는 친환경 톱 티어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*■** 2021년 12월 판매

한편, 현대차는 2021년 12월 국내 6만 6,112대, 해외 26만 8,130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33만 4,242대를 판매했다. [끝]